



우수작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적도의 남자>가 < 짹 >에게 답하다

정진아

김인영의 <적도의 남자>는 전작 <태양의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둘러싼 인간의 복잡 미묘한 심리변화에 주목한다. 많은 복수극이 ‘죄를 짓다’, ‘단죄를 하다’ 등의 서술형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삼는 데에 비해 김인영의 두 작품은 ‘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죄는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잠식하는가’, ‘복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그 답을 탐방한다. 김인영이 죄지은 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주목한 죄의 씨앗은 ‘외로움’이었다. <태양의 여자>가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어떻든 나 자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만족감’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근원적 불안을 보여줬다면 <적도의 남자>(이하 <적남>)는 자신이 지닌 능력,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에도 타인(혹은 외부)으로부터 반복된 소외를 당하게 될 때 인간이 느끼는 좌절감을 그려냈다. 두 작품 모두 ‘내’가 ‘타인’과 올바르게

관계 맺지 못할 때 느끼는 소외감과 그로 인한 불행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대체 ‘타인’이 ‘나’에게 무엇이어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인가.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타인은 지옥”이라 했고,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나’는 ‘너’로 인해 ‘내’가 된다”고 했다. 사르트르에게 타인은 자신들의 ‘불완전한 시선’을 이용해 나를 억압하는 존재다. 타인을 통해서만 ‘내’가 존재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에 나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해야만 한다. 그에 비해 부버는 ‘나’와 ‘네’가 참된 공동체 관계를 맺을 때야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참된 삶은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너’란 존재를 만나는 과정이었다. 양단 모두 ‘나’라는 주체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두 말의 온도차는 분명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타인’은 ‘나’의 지옥이 될 수도,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타인’과 ‘내’가 맺고 있는 이 모호한 관계성! 그게 정통드라마 <적남>를 이해하는데 — 일견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 SBS의 문제작 <짝>을 소환하는 이유이다.

1. 나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걸 보여주세요

<짝>은 짝짓기 연애 버라이어티와 유사한 형식을 차용하면서도 자기정체성을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제작진의 이런 자기선언을 비꼬는 시청자들이 많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재미에 집착한단 것이다. 분명 <짝>은 10여 명의 남녀가 서로 탐색하고 저울질하

는 과정을 그리기에 태생적으로 자극적이다. 하지만 “자신 안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신을 흥분시킬 수 없다”는 헤르만 헤세(Hermann Hess)의 말처럼, 시청자들이 <짜>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은 현대인들의 숨겨진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짜>의 출연진들은 ‘나한테 맞는 몸매, 얼굴, 성격, 스펙을 가진 여자를 찾으러 왔다’, ‘남자의 재력은 최소 잠실 29평 아파트 전세 정도는 되어야 한다’ 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

대체 무엇이 <짜>의 출연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만드는 걸까. 그건 제작진이 ‘애정촌’에 부여한 성격 때문이다. 애정촌의 절대목적은 6박 7일 안에 결혼하고 싶은 이성을 찾아 호감을 얻는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을 고르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애정촌은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이성을 가능한 빨리 ‘선별’해 ‘쟁취’해야 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어야 할 사랑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제 사랑은 목표가 되었고 타인은 경쟁자가 되었다. 그들은 원하는 이성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패를 보여주려 애쓰고, 상대가 가진 패를 보려고 노력한다. <짜>의 연출가 남규홍 PD는 “그 사람의 외면이 아닌 자체를 들여다보라”는 의도에서 출연진들을 번호로 부르게 했다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워진 이름을 대체하는 건 ‘그 사람의 총체적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 요소들의 집합’일 뿐이다.

<짜>의 참가자들은 ‘이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애정촌의 행동강령에 따라 이성의 모든 부분을 갈기갈기 찢어 하나하나씩 검증하려고 든다. 외모, 재력, 직업만이 아니다. <짜>의 9기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실함’을 보고 싶으니 아침 6시마다 일어나 애정촌을 청소해달라고 요구하고, 한 참가자는 ‘당신의 진심은 알겠는데, 당신의 다정함에는

무뎠으니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며 아예 자기 맘에 들 만한 색다른 모습을 주문하기도 한다. 출연자들이 짝 검증에 진지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상대에게 요구하는 바는 커지고 방송은 적나라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짝>은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와는 애당초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짝>의 진짜 존재가치는 '사랑'이 소유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할 때 인간이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싸늘한 진상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제작진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 <짝>은 사랑을 탐방하는 다큐가 아니다. '어떤 걸 가졌느냐'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타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현대인들의 삶, 그 실존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태풍자에 가깝다.

'가진 것'으로 대상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고질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회가 인간의 이기적 이익 추구를 정당한 사회윤리로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탐욕은 더 이상 부덕이 아니게 되었고, 경제적 가치는 합법적으로 다른 모든 가치들을 잠식해 들어갔다. 인간은 이제 사랑, 우정 등과 같은 계산 불가능한 가치들조차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켜 소유하려 한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던진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에서 엿볼 수 있듯, 소유는 이제 현대인들의 지배적 실존양식이 되어 '어떤 존재인가' 대신 '뭘 가지고 있는가'로 인간의 존재가치를 판단하게 만들었다. <짝>은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린 초상과 같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유의 정도 = 인간의 가치'라는 작금의 현상만을 다룰 뿐, 자기식의 해석이나 문제화가 없다는 점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의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짝>이 드러낸 현상을 문제화하고 담론화한 작품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KBS 드라마 <적남>이다.

2. 가진 건 늘어나는데 인간은 왜 외로워질까요

<적남> 안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선우(엄태웅 아역 이현우 분)의 세계관과 ‘좋은 걸 가진 삶이 곧 좋은 삶이다’는 이장일(이준역 아역 임시완 분)의 세계관이다. 두 세계관의 차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건 최수미(임정은 아역 박세영 분)를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다. 수미는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지만 선우만은 그녀를 무당의 딸이 아니라 수미 자체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대해줬다. 그에 비해 장일은 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회장인가 무당인가로 그녀의 가치를 판단한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에리히 프롬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선우는 대상의 현재적 실존 자체를 중시하고 장일은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이용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 두 세계관의 차이는 소년들이 아직 순결한 낙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우정의 장 안에 머물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낙원이 ‘나의 기회는 너의 불행을 먹고 만개한다’는 자본주의의 제로섬 논리 안으로 포섭되는 순간 비극으로 변모한다. 가진 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기에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장일은 제로섬게임의 법칙을 받아들여 ‘너를 죽여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로 결정한다. 장일은 계산 없는 우정을 그에게 베풀었던 유일한 친구를 죽이고, 선우는 제 목숨보다 아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나 눈부셨던 낙원이 소유의 문제가 얽히자 순식간에 타락해버린 것이다. 이들이 겪는 비극은 단순히 두 소년들 개인의 잔혹한 운명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지배하는 세상의 추악한 실체를 꿰뚫는다.

김인영은 <적남>을 통해 소유로 넘쳐나는 이 풍요로운 세상이 실은 앙상하고 식막한 골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한다. 소유가 삶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이 왜 고립되며, 왜 외로워지는지 근본적 원리를 재현해 보인다. 소유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타인이란 존재는 내 소유물을 빼앗아 갈 잠재적 ‘적’이거나 소유하고 싶은 걸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 그도 아니면 내가 이용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소비품’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그 세계 안에는 참 의미의 친구도, ‘나’라는 진정한 자아도 있을 수 없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를 소유물과 모든 인간에게서 소외된 외로운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적남>의 등장인물들은 그래서 대부분 외롭다. 장일이 살면서 겪은 세상은 서로가 가진 힘의 크기를 저울질해 힘이 있으면 짓밟고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전쟁터였다. 선우를 만나기 전까진 세상 모든 인간은 장일에게 “경쟁자”일 뿐이었다. 선우는 차디찬 세상 속에서 그가 만난 유일한 온기였다. 그렇기에 선우를 죽인 뒤, 참을 수 없는 한기에 시달리는 것이다. 수미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장일에게 애정을 갖게 된 것도 그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수미는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세상 안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당의 딸’이란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수미는 성공은 꿈꿔도 좋은 사람이 될 필요성은 못 느낀다. 장일이 그러하듯 그녀 역시 자신을 수식해줄 멋들어진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갖고 싶은 게 있음 돌아버”리는 괴물로 성장한다.

‘타인’과 ‘내’가 서로를 ‘어떤 사람인지’ 대신 ‘뭘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할 때 ‘타인’은 영원히 ‘나’의 경쟁자일 뿐이고, ‘나’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영원히 소유에 목매게 될 뿐이다. 그런 인생에 진실한 행복은 없다. 가지지 않는 실존적 외로움만이 있을 뿐! 그게 <적남>이 나날이 소유중심적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현대인을 진단하며 내린 결론이자 시청자에게 던지는 충고다. 권력 다툼이든 재산싸움이든 모든 인간사는 결국 행복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다. 하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지닌 실존적 외로움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김인영의 <적남>은 외로운 현대인들의 삶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까지 제시한다.

3.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적남>에는 한지원(이보영 아역 경수진 분)과 장일이 극장에서 고전영화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그들이 본 영화는 ‘탐욕과 살인’을 다룬 <태양은 가득히>와 ‘인간의 원죄와 용서, 구원’을 다룬 <에덴의 동쪽>이다. 의미심장한 인용이다. 두 영화를 나열한 장면은 <적남>의 지향점을 완벽히 압축해 보여주는 몽타주다. <적남>은 탐욕에 미쳐 죄를 범한 이들을 단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탐욕에 빠진 현대를 진단하고 그 상황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적남>의 김인영 작가가 찾아내어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는 탐욕의 해방구는 무엇인가! 그 답은 심리·복수극에 가까운 <적남>이 의아하게도 정통 멜로를 표방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탐욕의 해방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잘 알려졌다시피 <에덴의 동쪽>의 모티브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성서 속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간단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즉 인류 최초의 살인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좌절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죄와 외로움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관계는 이렇듯 특수할 것 없는, 전형이자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적남> 속 인물들은 그걸 잘 보여준다. 탐욕에 빠졌든, 복수심에 허덕이든 그들이 겪는 모든 불안증은 사랑(우정)에 배신당했거나 사랑받지 못한 좌절감에서 발생했다. 진노식 회장이 인간을 불신하는 것, 장일과 수미가 성공과 소유에 목매는 것, 선우가 복수심에 불타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것 모두 ‘사랑받고 싶으나 받지 못한’ 소외감에서 비롯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영은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소외에서 벗어나려면 진실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진실한 사랑의 본질 깨달기. 진부하지만 그게 김인영이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조제한 처방전이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짜>과 드라마 <적남>의 교차점이 여기에서 다시 발생한다. <짜>이 돌아보고자 했던 진실한 사랑의 본질이 <적남> 안에서 형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면 김인영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드라마 속 수미와 지원의 대화에서 답을 엿볼 수 있다. 수미는 지원에게 묻는다. “선우가 계속 눈이 멀어 있었어도 사랑했을까?” 그러자 지원은 답한다. “눈을 떴건 감았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김선우라서 좋았지.” 김인영이 말하는 진실한 사랑은 간단히 말해 재고 따지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뒷모습, 뒤통수에 갇든 고통까지도 그의 일부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건 서로를 검증하는 것을 참가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지정한 <짜>의 세계관에 완전히 반(反)하는 태도다. 즉 사랑해야 할 대상이 갖춰야 할 조건(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이 뭔가를 따지는 것이 <짜>의 세계라면, 진실한 사랑이 뭔지나 알고 조건을 따지는 거냐고 되묻는 것이 <적남>의 세계다. <적남>의 이 지적

은 예리하다. 그렇기에 드라마 중간 지원이 읽는 에밀 아자르(Emile Ajar)의 책 『자기 앞의 생』의 한 구절은 적나라하고 뼈아프다.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사랑 없이는 살아도 조건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적당히 재고 따지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말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로 서로를 판단할 때 ‘나’와 ‘타인’은 서로의 인정을 받고자 영원히 소유에 목매게 될 뿐이다. 그럴 경우 ‘타인’과 ‘나’는 영원히 경쟁자인 채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간은 외로워지고, 외로워질수록 더 많은 탐욕과 죄악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유기하고 있기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던 노희경 작가의 말은 옳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우리는 타인을 탐욕으로 내몰고 있는 죄인인 동시에 죄인에 의해 방치된 피해자이다. ‘타인’이 ‘나’에게, ‘내’가 ‘타인’에게 지옥일지, 구원일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억압하는 지옥인가 아니면 위안하는 구원인가. 분명한 건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소유에 집착하는 한 우리에게 참 의미의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